

사설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들은 22~23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29일부터는 법정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거리에는形形色색의 옷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시선을 끌고, 골목마다 선거차량들이 로고송을 쏟아내고, TV에서는 토론회가 잇달아 개최될 것이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유권자인 주민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고 보기 싫어도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는 정치의 남의 일로 여기거나 혹은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공해'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을 때부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정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왔다. 자동차가 내뿜은 연기가 싫다고 운전대를 배우지 않더라도 매연에서 자유

로울 수 없으며, 개미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날 거리를 걷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하는 것이 삶이다. 백이와 숙제처럼 깊은 산골에 들어가 고사리만 먹다가 굶어죽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정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 정치가 삶과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 이번에는 투표를 하겠다고 마음 먹어도, 후보자에 대해 자세히 알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주위'의 권유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친구따라 강남간다'는 말처럼 친구가 또는 친척이 혹은 '하는 사람'이 찍으라고 해서 찍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하려고 후보자에 대해 알아보려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본지를 비롯한 신문과 방송의 보도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집집마다 배달되는 선거홍보물과 TV토론회 등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선택할 후보자를 고르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의 후보자이기 때문에 또는 내세우는 공약이 좋아서 등의 합리적인 이유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남이 찍으라고 해서 찍는 것은 자신에게만 주어질 '한 표'의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인 주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을 때가 바로 '한 표'를 행사할 때이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반찬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도 순전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남이 찍으라고 해서 찍는 것도 문제지만, '잘 생겨서' 찍거나 성씨가 같아서 찍는 등의 행위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식이라면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해품달'의 주인공 김수현은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이번에 본지가 후보자의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지면 인터뷰를 보도한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 라도 되기 위해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 본인에 대한 평가여야 하겠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가정을 이루며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평가하는 후보자는 어떤 이미지인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을 보고 찍을 것인가

김정균 칼럼위원의 중국 심천 여행기④ 마지막 고향 떠나면 고생

경제대국 성장 불구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 많아

골프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의 국기인 오성기의 바탕색에서 볼 수 있듯이 가게간판에서부터 거리 안내표시, 광고, 호텔과 식당의 종이 등(燈)까지 온 시(市)를 붉은 색깔이 뒤덮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붉은색이 불행을 초래한다고 하여 이름도 적색으로 쓰지 않는 반면, 중국민은 적색이 행운을 가져온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라고 한다. 거리의 신호등이 디지털로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남은 시간(초)을

“비록 공안체제라고는 하나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세계의 대국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알려주는 것도 특이했다.

중국 전통요리를 먹으러 한 음식점에 들렀는데 가이드가 관광객들이 자주 오는 곳은 가짜도 많고 비싸니 자기가 잘 아는 곳으로 가져가고 하여 갔더니 음식은 맛있었는데 쌀 술은 가짜가 많고 비싼술은 값이 20~30만원대라고 하여 백주라고 하는 술을 시켰는데, 한병값이 8만원으로 그 값 또한 만만치 않았다. 그날밤에는 호텔방에 온열기를 부탁해 춥지 않은 가운데 잠을 잘 잤다

마지막 날 골프를 치고 난 후 중국요리에 시달려 온 우리는 가이드에게 저녁식사는 삼겹살로 할 것을 특별주문 하였다. 안내를 받아 간 음식점 주인은 고향 중학교 선배로서 지역관리 중국에서 우연히 만나 반가웠지만 막상 주인은 별로 반갑게 맞이하지 못하는 어두운 모습을 보고 중국에서의 그의 삶에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고향 떠나면 고생이라고 했듯이 중국에서의 대화의 불소통과 식성에 맞지 않는 음식맛, 비싼 물가는 빨리 한국으로 되돌아가고 싶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고성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음식들, 지인들과의 술자리들을 그리워하게 하였다

이제 중국여행에서 느낀 점을 요약하고자 한다. 중국은 과거의 빈국이 아니라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1인당 GDP는 1만 달러도 안되고 빈부격차가 커서 아직도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상류층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업의 물가는 서울보다 1.5배 비싸다.

화장실이나 공중도덕 등에서 볼 수 있는 시민문화와 서비스업 종사자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우리보다 10년 정도는 뒤처진다. 중국은 이미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북한과 함께 세계 유일의 공산주의 체제로서 공안정국이다.

그러나 정치가 난장판이 되어 오히려 정

치가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현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공안체제라고는 하나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세계의 대국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가 세계의 가장 바람직한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게 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국이 조선족을 자기 민족으로, 한국사를 자기네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동북아 공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김정균 칼럼위원

※오피니언란에 실린 글 가운데 '사설'을 제외한 모든 글은 본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란 기고·독자투고 원고 받습니다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

고성신문을 만드는 사람들

임직원 : 발행인 윤승근 편집국장 최광호 취재기자 원광연 총무과장 김창순 프리랜서 디자이너 이도연
칼럼위원 : 김광섭 김정균 김종식 김지연 남숙희 남영선 박형수 이선국 최금란 한성수 황연옥
시민기자 : 강성희 김일용 김태극 박선애 백옥식 장공순 최돈불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